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6월 19일 (제85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간접자본을 활용하라

‘사냥감으로 살 것인가, 사냥꾼으로 살 것인가’라는 화두를 나는 자주 던진다. 사냥감으로 산다는 것은 늘 쫓기는 신세이므로 삶에 안식이 없다. 여유란 있을 수 없고, 늘 위협을 느껴 불안한 상태가 사냥감의 삶이다. 반면 사냥꾼은 사냥감이라는 목적을 두고 살기에 삶이 늘 흥분되고, 사냥감을 획득했을 때 환희를 맞는다. 그런데 요즘 이런 생각을 한다. ‘사냥꾼도 사냥감만큼 괴곤하기는 마찬가지겠다’는 것이다. 사냥감이 도망가는 만큼 사냥꾼도 같이 뛰어야 하고, 사냥감의 속도보다 더 빨라야 사냥이 가능하기에 사냥꾼의 삶도 결코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 답은 바로 사냥개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냥개를 잘 훈련시킨다면 사냥감을 일일이 쫓지 않아도 된다. 목회 초기 한 꿈을 꾸었는데, 단 위에 내가 서 있는데 내 앞에 많은 제자들이 서 있는 꿈이었다. 그 꿈이 새삼 영롱하다. ‘맞다. 내가 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제자들을 잘 키우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나는 기도원 집회 때 제자들을 매 예배시간마다 단에 올려 2시간씩 기도하게 했다. 제2의 이초석, 제3의 이초석을 만들기 위해서다. 우리 주님도 12제자를 삼아 당신의 뜻을 전파하셨듯이, 나도 유능한 제자를 양성하여 교단 적재적소에 세우리라 다짐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혜다. 지혜란 삶을 편하고 안전하게, 쉽고 빠르게 하는 지렛대 같은 것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간접자본을 활용하는 것이다. 인적(人的), 물적(物的), 지적(知的) 자원을 다 내 스스로 구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미 구비된 자본을 활용하는 것도 지혜다. 그 중 최고의 간접자본은 누가 뭐래도 다양한 책을 접하는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마치 최고의 브레인을 곁에 두는 것과 같고, 동서고금의 지식과 노하우를 쉽게 섭렵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다. 사냥개 한 마리 키워보지 않겠는가!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여유다

“지도자의 덕목 중의 으뜸은 바로 여유다.” 이것은 지난 7일 목사님의 집무실에서 있는 중고등부 및 청년대학부 임원 교육의 핵심내용이다. “웃도 작은 웃을 입으면 불편하고, 자리도 비좁으면 힘들다. 마음 역시 좁으면 우선 자신도 살기 힘들고, 더더욱 지도자는 될 수 없다. 여유라는 한문을 보자. ‘먹을 식(食)+나 여(余)= 남을 여(餘)’이고, ‘옷의(衣)+계곡 곡(谷)= 넉넉할 유(裕)’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유란 ‘내가 먹고 입고 시원한 것처럼 남에게도 하는 것, 곧 남을 나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싫구나’ 하는 마음을 베푸는 것이 곧 여유 아니겠는가. 또한 여유는 자신감에서부터 나온다. 이는 준비한 자의 몫이다. 지식을 쌓아놓은 자, 저축해놓은 자, 기술을 축적한 자는 자신감이 넘친다. 고로 지도자는 다방면에 준비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단체를 이끌어야 한다. 사냥꾼의 삶을 살 것인가, 사냥감의 삶을 살 것인가도 ‘얼마나 준비했느냐’로 판가를 난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쫓기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여유로운 자는 평소 사냥개를 훈련시켜 그것을 활용하는 지혜까지 갖춘 자라 할 수 있다.

앞도 뒤도 없는 말인지라 나는 ‘아니, 회장님, 저를 존경하더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내가 한타 한타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존경스럽다는 것이다. 나는 그의 말에 ‘회장님,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건 회장님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했더니 그가 박수를 쳤다. 그렇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사장을 무시하는 것이고, 공부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공부시키려고 애쓰는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다.



중고등부 및 청년대학부 임원교육(2016년 6월 7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하면 겉옷도 주며, 오리를 동행하자거든 십리를 동행하라’(마5:39~42)는 이 말씀은 성경적 여유의 정의이며, 이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귀결시킬 수 있다. 지도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바울의 권면대로 온갖 오물도 다 안을 수 있는 대양 같은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후 6:13). 오물을 싫어하고야 어찌 대양이 될 수 있겠는가.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단체를 순조롭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는 곧 사람을 살리는 것이므로, 여유는 ‘사랑의 묘약’이라 할 수 있다. 임원이 아닌 사람이 오늘 여기 참석하기를 원했을 때 ‘안 된다’라고 단정하기 전에 ‘너도 임원이 되고

조급한 지도자가 되지 말라. 조급한 마음이 매사에 헛발질하게 된다. 마음의 여유는 환경을 바꾸고, 적을 아군으로 만들 수 있음을 잊지 말라.” 목사님은 말씀 후 전도사들로 하여금 오늘의 말씀을 요약 발표하게 하셨다. 이는 반복교육이라는 학습적인 측면뿐 아니라 뒤늦게 도착한 임원들까지도 말씀을 깨닫게 하려는 깊은 뜻이 있었다. 이것이 지도자의 덕목, 여유다. 그리고 금요일 이어진 JC 아카데미에서 목사님은 ‘성공하기를 원하면 매사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내가 모 회장과 골프를 할 때였다. 나의 구력은 40년이 넘었다지만 가끔 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실력이 못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 공을 쳤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 존경합니다’ 하는 거다.

내 목회철학, 내 신조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는 말씀이다. 나는 차선을 모른다. 오직 최선이 있을 뿐이다. 그냥 나의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아는가? 대충이란 기생충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충을 잡아야 한다. 정신개조를 해야 한다. 정신일도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이라 하지 않았는가.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하라.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최고가 되고 싶은가? 매사 여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주일은사집회

매주일 오후 3시

KBS스포츠월드(화곡동 KBS88체육관)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4:2)



최고가 되는 비결, 바로 ‘최선’이다

저는 신문이나 영상편집자들에게 영화 ‘벤허’의 100번 시사회를 자주 거론합니다. 벤허라는 불멸의 명작이 나온 것은 100번 시사회를 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에도 이런 명작정신이 필요하기에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는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잠언의 말씀을 문자로 보내는데, 저는 이것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영혼을 살릴까 고민하고 글을 씁니다. 사진하나 고르는 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매사 최선을 다하십시오. 경기에 임하는 씨름선수가 살아 줄을 단단히 잡듯이, 사자박토(獅子搏兔), 밀립의 왕인 사자가 팔딱팔딱 뛰는 토끼를 잡을 때 최고의 스피드로 혼신을 다하듯이, 집중력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그저 앉아서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매사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열과 성을 다해 간구하여 성공하고 승리했습니다. 야곱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불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창31:40)라고 고백할 정도로 외삼촌 집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보디발의 가정에서 충성했습니다.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더니 보디발의 아내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얻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들어간 옥에서도 그는 최선과 성실함으로 일해 제반 사무를 다 처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짜는 쥐뿔에나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다윗은 여호와와의 계약을 다시 성으로 모셔올 때 너무 기뻐 춤을 추다 그만 옷이 흘러내렸습니다(삼하6:14). 그런 그에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칭호는 당연한 것입니다. 늘 말씀 드리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온 네 친구는 병든 친구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 곁에 가려하였으나 사람이 너무 많아 근처에도 갈 수 없자 지붕을 뚫어 병든 친구를 매달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다한 모습을 주님은 ‘믿음’이라 하시고 병든 그 친구를 고쳐 주십니다. 최선을 다하고자 하면 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예수님도 일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기 전까지 목수의 아들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의 기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셨고(눅22:44), 귀신을 내쫓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눅13:32)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도 자기 곁에서 죽어가는 강도까지 구원하시고, 최선을 다해 자기 사명을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로, 누가복음 19장에는 므나로 최선을 다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자에 게

는 칭찬과 상을, 그렇지 않은 자에는 질타와 저주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해당되니까?

우리 삶에 있어 ‘대충’이란 균은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 ‘대충’이란 균을 잡지 않으면 우리 삶은 망하게 됩니다. 대충이란 균 때문에 망한 경우가 아이성 전투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큰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는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그만 참패를 당했습니다. 아이성이 작은 성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대충 준비하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대강했는지 볼까요?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삼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수7:3). ‘대충’, ‘설마’가 사람 잡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격에는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을 하고는 군사 3만 명을 뽑아 아이성 뒤쪽에 매복케 하고, 여호수아가 직접 다른 군사를 데리고 직접 아이성에 들어가 대승하게 됩니다(수8).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



총회장 이초석 목사

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밤새 그물질을 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사 ‘사람을 낚는 어부’(막1:17)가 되게 하였고, 예수의 도를 좇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사울을 택하사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행9).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이 정신으로 그는 험한 파도를 넘어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엘리사도 처음 소명을 받을 때에 소 12마리를 끌고 최선을

을 다 해 발 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왕상19:19). 그는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도, 후계자가 되어 선지자의 삶을 살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회사도, 사회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아웃백이란 식당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장이 가만히 그 소녀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느리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설거지를 하면 세제로 닦고 물에 헹구어 바로 선반에 올려놓는데, 그 소녀는 물기에 젖은 그릇을 꼭 마른 수건으로 닦은 후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저희 어머니께서 무슨 일든 두 번 할 일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 소녀가 비록 일의 속도는 느렸지만, 완벽한 마무리를 해놓으니 더 손덜 것이 없었습니다. 점장은 지사회의에 나가 이 사례를 보고하였고, 발표를 들던 회장이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 일개 아르바이트생을 아웃백의 교육담당관으

로 채용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딤후4:15).

**너는 최선이냐?
차선이냐?**

그럼요, 세상일을 해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면 됐어’가 아니라 ‘이것이려야만 돼!’가 되어야 합니다. ‘대충’, ‘얼렁뚱땅’, ‘눈 가리고 아웅’을 버려야 합니다.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2~23). 주의 일도 그렇습니다. 주의 종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보는 것에 전무하고(행6:4), 양떼의 형편을 철저히 파악하고 항상 소떼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잠27:23). 또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마22:37),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며(마22:39), 예배도 얼렁뚱땅 드리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요4:24).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2)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충성된 자세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충성이 무엇입니까? 가운데 중(中)에 마음 심(心)이 합해진 것이 충(忠)이니 곧 진심과 정성이요, 말씀 언(言)에 이를 성(成)이 만나 성(誠)이니 역시 곧 진심과 정성을 뜻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과 자세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곧 ‘충성=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일을 대충하면 사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자를 중국으로 유학 보낼 때,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너를 보낸 할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줬습니다. 혹시 당신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회사 사장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눅16:12). 성공하는 법, 부자 되는 법, 인정받는 법은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사업이든 혼적 사업이든 육적 사업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할렐루야!

:: 상담코너 ::

:: Global Study ::

지난 주 필리핀에서 사역 중인 타고단 목회자가 목사님께 상담의 문자를 카톡으로 보내왔다
목사님의 진심 어린 답변과 깨달음에 감사하는 심정이 진하게 녹아있어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작년 5월에 어느 기독교 신문 기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부족한 저에게 책을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사이에 두 사람이 저에게 책을 쓰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가 싶어 일단 책을 쓰기 시작했고, 한 달 만에 400페이지의 초본을 90%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출판사를 놓고 1년간 계속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에 우연히 어느 분과 저녁식사를 하었는데, 그분 입에서 제가 1년간 기도한 출판사 대표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내일 그 대표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고민이 있어 제가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간단히, 일목요연하게 질문을 써 보겠습니다.
1. 제 주제(?)에 책을 써도 될지요?
(나이도 어리고, 많이 배우거나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럴듯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사역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2. 책은 한 번 쓰면 돌이킬 수 없으니, 이것이 또 다른 공격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3. 사모가 여러모로 걱정을 합니다.
(1~2번과 기타 등등에 대한 염려는 저보다 사모의 염려입니다.)
혹시, 목사님께 저희 사정을 말씀 드리면, 목사님은 하늘의 지혜가 있으시니 명의일침의 조언을 해주실지, 혹은 사모를 격려해주실지, 혹은 기도를 해주실지, 그 어떤 것이든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 부

부에게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시지 않을까 하여 이렇게 고민 끝에 장문의 카톡을 드립니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고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답변

“애야~, 네 아내의 말을 참고해라. 조금과 무리는 동색이다. 너도 죽고 남도 죽인다. 리더의 진정한 용기는 주도면밀한 것이다. 지금은 네가 성장할 때다. 성장 후 잘 익은 열매를 내놓아라. 잘 팔릴 것이다. 사랑한다~~

깨달음의 답변

목사님~
사랑의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읽고, 읽고, 또 읽느라 답장이 늦었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저도 사랑합니다~ ^^



:: 성경에세이 ::

헛발질 하지 말라

여보게!
목포에 사는 우리 손자가 글을 하나 써서 보냈는데, 그 글을 읽고 내가 깜짝 놀랐다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 녀석이 글씨 인생 명언을 남겼지 뭐냐. ‘인생도 헛발질 하지 말라!’ 놀랍지 않은가? 내가 그 글을 지인들에게 보여줬더니 다들 어린 아이를 통해서 정말 큰 것을 깨달았다고 하더군.
그렇다면 인생의 헛발질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는 반복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헛발질을 안 할 수는 없지.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박지성 선수나 호날두 같은 선수라고 처음부터 잘 찾겠는가. 그들도 헛발질 엄청나게 했을 거네. 그러나 끝없는 노력, 될 때까지 인내하며 반복에 반복해서 골을 찾기에 골인을 잘 시키는 것이 아니겠는가. 운전할 때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무의식 속에서 번갈아 밟듯 모든 것에 숙달 곧 달인이 되어야 헛발질 안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 자는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공을 차서 골인시킬 수 있고, 스타가 되는 거 아니겠나.
또 헛발질을 하지 않으려면 시기를 잘 알아야 하네. 축구에서 코너킥 같은 것을 헤딩으로 처리할 때 보면 공보다 빨리 헤딩을 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지. 그러다 오히려 역습을 당하기도 하지. 타이밍이 중요하다네.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 공부해야 하고, 장성한 자들은 현실 감각을 키워야

하고 축이 발달해야 한다는 거지. 시기를 모르면 엇박자가 나서 헛발질 하게 되거든. 바람이 불 때 연을 날리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인생에 헛발질 중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남의 공을 차는 자들이네. 경기장에 다른 공이 들어왔다고 그 공을 차면 되냐? 그거야 말로 헛발질이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것을 찾아야 헛발질 안하게 되는 거라네. 남의 공 차지 말라는 거지. 자기에게 맞는 일, 달란트대로 일을 하고 직장도 택해야 한다네.
헛발질 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얘기해볼까? 그건 주변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이라네. 축구 선수가 골 넣을 생각은 안 하고 관중들 환호나 야유에 마음을 빼앗겨 흔들리니 헛발질을 하는 거라네. 그래서 목적을 정했으면 귀는 막고 오직 눈만 뜨고 달려야 하는 거라네.
여보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사는 것이 결정적인 헛발질을 막는 방법이라네. 여기에 무슨 부연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자네도 우리 손자 말대로 인생 헛발질해서 헛되게 살지 말고, 제대로 살아보게나.

朋友

☞네가 뉘게 배웠나? 배우려면 확실히 배우라(딤후3:14)

From whom did you learn from? Learn to the fullest(Timothy 3:14)

프렘 흠 디 주 러언 프렘? 러언 투 더 풀리스트

你跟谁学的呢? 想要学习就要确确实实(提后3:14)

니건씨어웨더너 샹요웨씨 쥬요 웨웨스스

☞호랑이가 고양이에게 배우면 호랑이 형세 못한다.

If a tiger learns from a cat, it can't become a true tiger.

이프 어 타이거 러언스 프렘 어 캣, 잇 캄트 비컴 어 츠루 타이거

虎从猫学, 就不能成为真正的老虎。

후츨모웨, 쥬뿌녕청워이쩡정더로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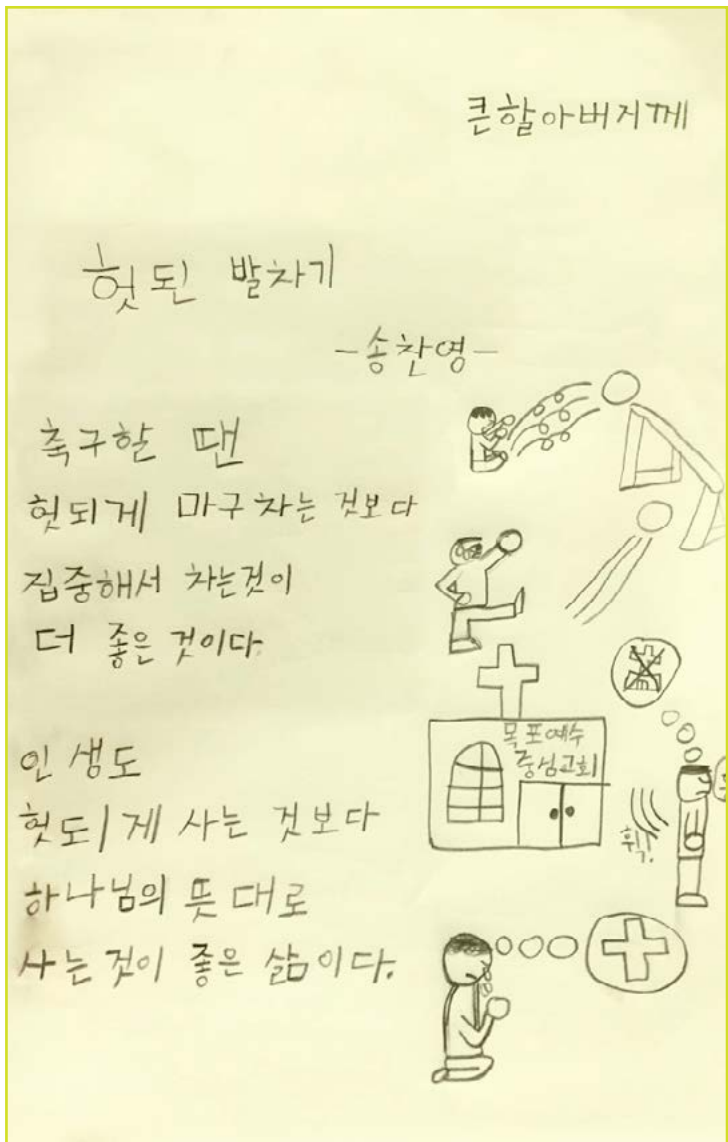
☞독수리 또한 닭에게 배우면 평생 닭인 줄 알고 산다.

Furthermore, an eagle, that has been raised by a chicken, will think that it also is a chicken.

퍼더몰, 언 이글, 댓 해스 벤 웨이스드 바이 어 치킨, 윌 텡 댓 잇 올쏘 이스 어 치킨

鹰从鸡学, 就一生以为是鸡。

잉츨지웨, 쥬 이쨡이워이쨡지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무례한 남자와 까칠한 여자

“오늘도 내 인사를 씹다니.”

회사에 저보다 나이도 연차도 십여 년 높은 남자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인사할 때마다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휙 지나가버리는 겁니다. 사람 민망하고 불쾌하게. 서로 다른 부서라서 같이 일을 해본 적도, 대화를 나눴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지요. 한두 번은 나를 못 봤겠거니 했는데 그게 1년 동안 반복되자 판단이 섰습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무례하고 권위적인 사람이구나. 다신 저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으리, 결심까지 했더랍니다.

두 달 전, 광고 촬영으로 제주도 출장을 갔는데 그분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촬영 중간에 둘만 있게 된 상황이 왔는데 어찌나 불편하고 싫은지 핸드폰만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인사 한번 안 받던 그 사람이 말이지요.

고등학생 딸이 하나 있는데 글 쓰는 걸 좋아하는 다면서 카피라이터가 되려면 무얼 하는 게 좋겠느냐고 물어왔고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각자 살아온 이야기, 직장생활, 신앙심까지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건 그분이 재미있고 따뜻한 분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물어보았지요. 그거 아시냐고, 지난 1년 간 제 인사를 무시해 오셨던 것. 그래서 속으로 굉장히 권위적이고 못된 분인 줄 알았노라고. 아까도 불편하고 어색해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많이 놀라시더군요.

본인이 인사를 안 받는 줄 오늘에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늘 머릿속에 일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못 보았다고요. 반대로 그분은 제가 굉장히 까칠한 사람인 줄 알았답니다. 보통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카피라이터나 아트디렉터들은 좋은 말로 하면 자기 개성이 뚜렷하고 나쁜 말로 하면 자기 중심적인 부류가 많아서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답니다. 자기가 옆에 앉아 있는데 자꾸 핸드폰만 보고 있길래 말 걸지 말라는 걸로 느껴졌대요. 그래서 말을 걸까 말까 하다가 그냥 걸어봤다고요.

이 일은 저와 그분에게 꽤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말해보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또한 작은 말 하나로 쉽게 풀릴 수 있는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우리에게서 서로의 마음을 간파하는 텔레파시 같은 능력은 없지만 대화라는 능력은 있지요. 생각해 보면 지금껏 얘기하거나 물어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나랑은 안 맞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판단해버린 적이 꽤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을 오해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었는데 말이지요.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을 훈련해야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오해들이 쉽게 풀릴지 몰라요.

신은혜

dopal0203@naver.com

오닝 메시지 **답신**

*** 목사님, 오늘도 만나 맛있게 먹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목사 주셔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바쁘신데도 매일 만나의 말씀을 보내주시니 힘이 나고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깨닫고 빛을 보고 뒀고 있습니다. 썩은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주신 목사님, 우러러보며 사랑합니다. 다스리의 삶에 의욕이 소생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나 정말 정말 행복해요♡

*** 다음 세대를 위해 친히 교육국 담임 목사를 자처하시며 애쓰시는 목사님 존경합니다! 흑자는 총회장 목사님이 교육부까지 하시냐고 비아냥거리는 이도 있더군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강산을 후손들에게 피 흘림 없이 물려 주시려는 고귀한 뜻. 예수중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인물들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목사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결과인 듯 합니다. 다음세대들을 고양이와 아니라 호랑이로, 닭이 아니라 독수리로 만드시기 위한 목사님의 사역에 박수와 경의를 표합니다. 예수중심의 다음세대들이 반드시 분명히 일어나 교회와 나라와 민족, 온 세상을 살리는 목사님의 열매가 나타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목사님!**



:: 교단소식 ::

열조들이 터득한 지혜를 배워라



중고등부 세미나(2016. 6. 11)



세미나 때마다 봉사해주시는 성도님들

11일, 교육부 담임이신 이초석 목사님의 중고등부 세미나가 열린 교육관은 지난 주와 달라져 있었다. 지난 주에 아이들이 바닥에 앉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목사님의 지시로 의자를 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필리핀 집회 때의 일이다. 집회 후 제작회의를 목사님이 기거하던 호텔방에서 했는데, 의자

옹기서 8장 8절에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찌어다’라고 말씀하셨지.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단다. 그 중 먼저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곧 성공한 자들은 다 부지런했단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잠

12:24),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잠12:27),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잠13:4). 꼭짓점 인생이 되고, 부귀를 얻려면 부지런은 기본이라한다. 반대로 게으른 자는 잠언 26장 13절 말씀처럼 핑계나 대는 자들이란다. 성공한 자는 방법을 찾지 절대 핑계대지 않는단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는 핑계 대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찾았지 않니? 게으른 자를 쓰는 것은 이빨을 식초에 담그는 것과 같고, 눈에 연기를 뿌리는 것과 같지(잠10:26). 전진할 수 없고 도전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 매사에 부지런하거라.

둘째는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즉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부지런히 배우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간구에 응답하신단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 했거든.

셋째는 ‘청결하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하셨다. 마음이 깨끗하면 말이, 행동이, 의복이, 그 주변이 깨끗하단다. 너희는 백지같이 깨끗한 자들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가 좋아. 백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으니 말이다.

넷째는 ‘정직하면’, 성공자들에게서 정직을 배워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니?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단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잠2:7). 왜 안 그랬겠니? 거짓의 아버지는 마귀인데 말이다. 너희는 오늘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단해야 한다. 매듭을 짓지 않으면 아무것도 꿰맬 수 없듯, 결단하지 않으면 나는 소쿠에 경을 엮은 것 아니겠니? 남을 채찍질하지 말고 나를 채찍질하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나를 비판해라. 남에게 관대하되 나에게에는 모질어야 성공자의 반열에 들 수 있다. 그래서 너희 모두는 일천 남자 중에 하나요, 일천 여자 중의 하나가 되거라(전7:28).”

목사님은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를 복창하게 하셨다. 오늘의 말씀을 심비에 새겨 시대를 주도하고 지배하는 자들이 배출되기를 기도한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